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분명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환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7월 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민주화가 진전됐으며 국민소득 1만불시대를 살고있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는 별다른 성숙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올해 경제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제도적 개혁도 중요하지만, 노사간 공동생존을 위한 진정한 공생관계로 거듭나려는 의지가 더욱 중요하겠다. 부처님이 설하신 노사관계는 당시 시대상황으로 주종관계이기는 하지만 노측과 사측의 마음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는 오늘 이시대에 큰 울림이 된다. 〈편집자주〉

勞使가 공생하는 길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일을 할당하고 음식과 급료를 주고 병들었을 때 간호하고, 진귀한 음식과 급료를 주고, 적당한 때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
〈시칼로비다숫타〉

고용된 사람은 고용주에 대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나중에 잠자리에 들고 주어진 것만을 받고 맡은 일을 잘 처리하며 명예와 칭찬을 퍼뜨리라.
〈시칼로비다숫타〉

많은 재물과 황금과 먹을 것이 있는사람이 혼자서 맛있는 것을 먹는다면이것은 파멸의 문이다.〈숫타니파타〉

만일 한 노동자가 재화나 곡식, 금이나 은을 얻는 데에 성공한다면, 그는 다른 노동자를 충실한 일꾼으로 삼아 자신은 기쁨을 만끽하고 정답게 이야기하면서 그 노동자를 자기보다 일찍 일어나게 하고 늦게까지 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아함〉

축재를 지향해야하는 목적은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하인과 일꾼과 남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중아함〉

장자는 다섯가지 일을 가지고 하인과 집사를 존경해 부양해야 한다. 다섯가지란, 힘에 알맞게 부리며, 때에 맞추어 의복을 주며, 때때로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며, 때때로 재계하게 하며, 병이 나면 쉬게 함이다.
〈선생자경〉

주인은 남종과 여종을 돌보는 데 있어서 다섯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음식과 옷을 줌이요, 둘째는 병이 나면 의사를 불러 치료함이요, 셋째는 함부로 때리지 않음이요, 넷째는 그 사유물을 뺏지 않음이요, 다섯째는 나누어 주는 물건을 평등하게 함이다. 〈육방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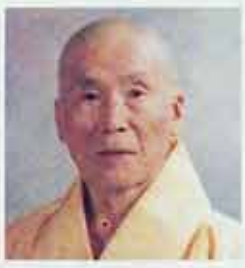
주인은 세속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종들에게도 주고 그 반만을 제가 차지해야 한다. 그런데 의식을 제만 차지해 멋대로 입고 먹고 하여 종의 몫은 아껴서 주지 않으며, 설사 준다해도 시기에 맞지 않게 주며, 많이 주어야 할 것을 조금 주어 늘 부족하게 한다면, 이는 세상이 가장 큰 그릇된 행위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니건자경〉

관련기사 3면

조계총림 방장 일각스님 일붕선교종 종정 경보스님 원적

송광사 · 일붕사서 사부대중 애도 영결 다비식

◇故 일각스님


◇故 경보스님

승보조실 송광사 조계총림 제3대 방장 회광 일각(廻光 覺璟)스님이 6월23일 오후 9시 30분 송광사 삼일암에서 법랍 50세 세수 73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다. 연이어 일붕선교종 종정 서경보스님이 6월25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세검정 세계불교법왕청에서 법랍64세 세수 82세로 열반했다. 〈관련기사 2면〉

일각스님은 1947년 지리산 칠불암에서 효봉스님을 은사로 출가, 해인사 범어사 상원사등 제방선원에서 수행정진했다.

6월27일 송광사에서 봉행된 영결식과 다비식에는 원로 중진스님, 전남부지사, 순천시장 등 지역기관장 등 사부대중 5천여명이 애도하는 가운데 총림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은 법정스님의 행장소개 혜암스님의 영결사에 이어 월하 종정스님의 법어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조사, 헌화순으로 진행됐다.

일붕 서경보스님은 1914년 제주 서귀포에서 태어나 19세에 출가해 동국대교수, 불국사 주지, 조계종 원로의원을 역임했다. 스님은 88년 선과 교를 병합하고자 일붕 선교종을 창종했으며 92년 세계불교법왕청을 설립해 초대법왕에 취임했다. 스님은 또한 69년 미 템플대에서 '한국선불교연구'로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30여부문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수많은 저술과 선서보급등 수행과 포교에 전념했다. 스님의 영결 다비식은 7월1일 동국대 운동장과 경남 일붕사에서 거행됐다.
〈이준엽 · 김원우 기자〉

◇비가 간간히 뿌리는 가운데 일각스님 다비대에 불이 지펴지자 사부대중은 생시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큰스님의 뜻을 이어 더욱 정진할 것을 기원했다.

"스님 조계산에 불지릅니다 나오시든지 계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6월 27일 일각스님 조계산 떠나시던 날

조계총림 방장 회광당 일각 대종사(승찬스님)의 영결식은 다섯번 울린 명종의 여운이 조계산에 맴도는 가운데 시작됐다. 청혼독경, 법정스님의 행장소개에 이어 생시가 들이 아님을 일러주는듯 스님의 육성법문이 경내에 퍼지자 빗속의 사부대중은 흐느끼며 스님의 열반을 애도했다.

"스님의 몸이 出世하신 것도 중생을 위함이요, 입적에 드신 것도 중생들에게 무상설법을 하고 대각의 길을 인도함이로다…. 스님 다시 오셔서 종단발전에 등불이 되어 주소서…. 이 영결식은 종문에 가풍이요, 분향은 옛길을 통했도다." 원로회의의장 혜암스님(해인사 방장)의 영결사다.

종정 월하스님은 이렇게 법어를 내렸다.

"萬古淸風任去來/淸淨本然是何物/曹溪山下一滴水/滅化光澄大海波"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조사에서 "정화불사에 남다른 역량을 보이셨을뿐 아니라 보조국사의 법맥을 전승 조계선풍을 내외에 드날리시더니 갑자기 세연을 끊고 열반에 드시니 허전하기 이를데 없습니다"며 애통해 했다.

종회의장 설정스님(장례위원장), 전남도지사를 대신한 박형인 부지사, 방성룡 순천시장도 "늘 천진동안으로 맑없는 가운데 道를 펴시다 말없이 가신 스님의 뜻을 받아 게으름없이 정진할것"을 다짐하는 조사를 했다.

문도 · 문중 · 총림 · 종단대표의 헌화 · 헌향속에 일각스님은 금생의 옷을 갈아 입었다. 이육고 고별을 알리는 108타종이 울렸다. 일각스님의 법구는 인로왕번을 필두로 오방번 등 5백여 만장이 인도하는 가운데 산내 다비장으로 향했다.

"스님 조계산에 불 지릅니다. 나오시든지 계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법구가 다비대에 안치되자 큰 외침이 있었다. 불길과 연기 그리고 사부대중의 지극한 염불속에서 일각스님은 무엇이라 답했을까.

순천=최정희 편집국장

지방승가대 정규대 승격 가능

해인 · 운문 · 동학 · 봉녕사등 … 설립 기준요건 완화

해인사 운문사 동학사 봉녕사 등 20여개 지방승가대학(강원)이 정규대학으로 승격될 수 있다.

오는 7월 중순 승인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대학설립기준령(안)은 학생정원의 하한선을 두지 않는 등 요건을 크게 완화해 불교계의 추진의지만 합의된다면 지방승가대학 정규대 설립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인스님이 1백명이상인 해인사 운문사 봉녕사 동학사승가대학등 일부 승가대학의 경우는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의 요건만 구비한다면 불교계의 위상과 면모를 갖춘 정규대학으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학설립기준령(안)에 따르면 교원은 1인당 학생수 비율을 25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승가대학이 학생정원을 2백명으로 할 경우 8명의 교수인원이면 된다. 또 교사는 강의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및 부대시설의 교육기본시설과 도서관 체육관 강당 및 그 부대시설의 지원시설로 구분하고, 학생 1인당 기준면적을 12㎡로 하고 있다. 때문에 지방승가대학은 2백명 기준 2400㎡, 약727평 정도의 교사를 확보하면 정규대설립이 가능하다. 교지면적에 있어서 교육부는 "교사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갖추고, 매년 재산총액 즉 학생수 등록금 전액에 따른 5%의 유 · 부동 소득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법예고해 일부 지방승가대학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승가대학이 정규대학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등록을 위한 교육용부지의 확보가 선결요건이다. 따라서 현 지방승가대학은 종단으로부터 교육용토지을 기증받아 법인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문화체육부에 등록되어있는 사찰을 교육부로 등록이전하기 위해 각 지방승가대학은 종단과 교육부, 문화체육부간의 상호합의와 이해를 도출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승가대학의 정규대설립 추진에 대해 아직 조계종단차원의 공식논의는 물론 종단 교육관련 및 해당 승가대학 관계자들간의 의견교환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승가대가 정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행자양성교육기관은 일반 세속 학위에 연연하기보다는 '수행자로서 본연의 모습을 갖추는 강원체계교육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스님의 사회적 위상과 교육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다.
〈도필선 기자〉

데생용 미륵반가상 전국 중·고교에 보냅시다

동참해주신 분

◇ 윤종영교장

△윤종영 영림중 교장: 영림중(2구좌) △고형일 전남대교수: 염산성지고(1구좌) △김진조: 동해시 북평고 부평중(2구좌) △박화문: 밀양여고(1구좌)

◇보급기간: 1996년 12월31일까지
◇구좌단위로 참여(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수 있습니다(지역학교 · 출신모교 ·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 온라인계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은행입금후 반드시 본사로 연락바랍니다.

특집 : 7월문화인물 도선국사 6·7면
모악산 송신탑 이전 요구 15면
불교미술대전 시상 · 운영 '오픈' 13면
선수촌 '한마음불자회' 필승법회 14면

전자게시판 모뎀번호 732-1550-3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고객과 함께, 자연과 함께